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이탈리아, 자동차보험 협정요율 대폭 인상 전망

- 애널리스트들은 금년 중 이탈리아 자동차보험의 협정요율(tariff) 인상으로 인해 자동차보험회사의 수익이 증가하며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발표함.
 - 금년 중 유로지역 전체의 자동차보험요율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탈리아의 보험요율 상승폭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됨.
 - 프랑스, 독일을 포함한 주요 국가가 자동차보험 요율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탈리아는 10%까지도 인상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됨.
 - 이탈리아의 Big 4 자동차보험회사인 Fondiaria-SAI SpA와 Unipol은 요율상승과 합산비율의 회복세에 힘입어 수익이 증가하고 주가도 상승할 것으로 보임.
 - Fondiaria-SAI SpA는 자동차수입보험료의 비중이 1/3을 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협정요율 상승은 순이익 증대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.
 - 또한 지난해 이탈리아 보험주가지수는 DJ STOXX 유로 보험주가지수 보다 18% 낮았으나 금년에는 자동차보험요율 상승으로 격차가 줄어들 전망임.
- 이탈리아 자동차보험시장은 독과점적 경향으로 인해 협정요율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이탈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요율 인상은 곧 수익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.
 - 딜로이트컨설팅은 이탈리아 자동차보험시장의 4개 보험사 시장 점유율이 65%를 넘어서고 있으며, 30여개의 보험회사가 나머지 35%를 점유한다고 분석함.
 - 온라인 보험회사는 2009년 현재 4.5%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유로지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인데 여기에는 컴퓨터 및 인터넷의 낮은 보급률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알려짐.
 - 손해보험 방카슈랑스는 보험사 방문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인해 2009년 현재 2.5~3%의 시장점유율에 불과하며 3~5년 이후에도 5%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.
 - 유로지역의 자동차보험 평균 계약이전율은 연 20~30%에 달하고 있으나 이탈리아 자동차보험시장은 독과점과 온라인 및 방카슈랑스채널의 구조적 위축으로 인해 10%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.

(Financial Times, 2/8)